

안철수 교수, 대전 교육력 향상을 위한 특강

- 주제: 21세기를 살아갈 인재들에게 필요한 다섯가지 마음가짐 -

교육선진화담당관실 2011.5.6.(금)

첫째, Broadmindedness(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는 이미 세상에 많다. 현재 필요한 인재는 자신의 전문지식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상식)을 겸비하여 그 분야 전문가와 합리적인 협의협력이 가능한 수용력과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 필요하다.

애플의 아이팟을 예를 들면 기존의 MP3플레이어에는 온/오프 스위치, 볼륨조절장치가 외부로 표출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팟은 없다. 중앙에 동그란 조절장치에 의해 모든 기능이 가능하다. 단순함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전 세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성공은 디자인팀이 설계회로를 읽을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트린 모델을 출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술팀이 전자회로설계를 해서 디자인팀에 주면 그 회로를 기준으로 외형 디자인을 한다. 하지만 애플사의 디자인팀은 기술팀에서 전달해준 회로설계를 이해하고 온/오프 스위치와 볼륨조절장치의 기존 위치를 플레이 조절 장치에 부쳐서 디자인한 것이다.



둘째, Communication(상대 눈높이에 맞춰 대화능력)

단순히 화술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등한시 하는 경향을 보인다. 타인과 소통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과거에는 다소 배타적인 전문가라도 별 무리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인재로 대접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더 이상 외골수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표현할 줄 알고 자신의 전문 기술을 분야 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식을 갖추어 타 분야의 전문가들 얘기에 경청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소통의 기술을 가지는 것이다. 개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 서로 공유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A형이 요구된다.

셋째, Positive thinking(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서 열정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낙관적으로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거를 볼 때 자기실수·실패에 감정소비가 아닌 교훈을 얻으려는 마음가짐, 미래를 향해서는 막연히 현실을 낙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을 겸비하라는 의미다.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믿음과 열정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도전해야 하는 일에 부딪혔을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현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상황을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현실이 반영된 균형감을 가진 후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조건 긍정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 후 가지는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Continuous learning(끊임없이 공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은 겸손함이다. 공부를 하다보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지 저절로 알게 된다. 나만의 기발한 착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다른 사람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임을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학습의 가치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저자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동일한 책을 초등학생, 대학생이 읽었을 경우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 독자가 자기가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자기실력이나 전문성을 유지하거나 다른 분야로 옮겨갈 때 꼭 필요한 것이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

다섯째, Pushing the limit (자기한계를 끊임없이 넓히려는 노력)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계상황에 부딪치면 그냥 물러서기에 앞서 그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는 해결하겠단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또 한번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며 물러서기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러니 일단 한번 물러나면 그것이 자신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한계상황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좁게 정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자기의 한계를 넓혀가야 한다. 걸프전의 종군여기자가 날이 갈수록 사상자가 늘고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버텨야 하는지 도망쳐야 하는지 고민할 때 대령이 전해 준 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그 선은 평생 당신의 한계가 될지 모른다.” 지금 넘지 못하면 평생 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 발작이라도 자신의 한계를 넓혀 가야한다. 혹시나 힘들 때 이 순간이 자기 합리화의 순간이 아닌지, 평생 다시는 자신이 넘을 수 없는 한계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자문하고 결정해야한다.